

순천만정원박람회·전국체전·농업박람회·수목비엔날레

내년 전남서 메가톤급 4대 행사 열린다

시설 점검·안전교육 등 강화
문화·관광 경쟁력 홍보 기대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내년에 전남 도내에서 국내외 '메가톤' 급 4대 행사가 열린다.

전남도와 해당 지자체 등은 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경쟁력을 홍보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4대 행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원박람회), 전국체육대회, 국제농업박람회(농업박람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수목비엔날레) 등이다.

정원박람회는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 도심 일대에서 열린다.

산림청·전남도·순천시가 주최하는

정원박람회에는 총 2,0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메가톤' 급 행사다.

노을정원·가든스테이·미래정원 등 국가 정원과 30개국 정원을 선보이고, 외국인 32만명을 포함해 800만명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개막식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도 요청할 계획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모든 것들의 개성과 멋이 스며들어 화합하고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이다"라는 크리스티안 볼프 전 독일연방 대통령의 말처럼 정원은 행복의 공간"이라며 "내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 종합경기장 등 도내 65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도 주목된다.

2008년 제89회 대회(주 경기장 여수) 후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도내 스포츠 복지기관 구축과

200만 도민의 역량과 결집력을 대내외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전국체전에 이어 11월 3일부터 8일까지 도내 36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농도 전남의 농업경쟁력을 보여줄 농업박람회도 국내외 농업관계자들과 도민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대에서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농업박람회에는 40개국 500개 기관·단체·기업이 참여한다. 국내외 관람객 100만명을 예상한다.

예향의 진수를 보여줄 수목비엔날레도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와 진도 주전시관 6곳 등 총 10곳에서 다양한 수목 작품을 선보인다.

'산과 그리고 물 송고한 조화 속에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수목비엔날레에는 30만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봤다.

도는 이들 대규모 행사가 '안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과 안전요원 교육, 안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4개 큰 행사가 한해에 열리게 돼 전남을 국내외 널리 알릴 기회를 맞았다"며 "알차면서 안전도 도외시하지 않는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민 기자

신정훈, 오늘 국회생생텃밭서 김장나눔행사

국회 생생텃밭모임과 도시농업포럼은 국회의원들이 담긴 김치를 올려뒀 수해피해 지역 주민들과 소외계층, 일선 군장병 등에게 보내는 김장나눔 행사를 갖는다.

1일 오전 국회 헌정회 인근 '텃밭'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의 후원으로



총 배추 1,000포기(약 3,500kg), 수육용 한돈 500kg, 햅쌀 500kg이 준비된다.

또한 김장은 해병대 연평대대 우도경비대, 동작구 수해피해지역

'삼성농아원', 전남 해남 '해남겨자씨공동체', 강원도 춘천의 노인복지관 등에 기증될 예정이다.

이번 김장행사를 준비한 국회생생텃밭 신정훈 야당 간사(사진)는 "국회 내에서 유일하게 정쟁과 대립이 없는 여야상생, 도농상생의 공간인 만큼 앞으로도 좋은 취지를 잘 살려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광주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광주시는 기상 등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안심도시 광주 만들기'를 목표로 ▲대기오염물질 감축·관리 강화 ▲시민 건강 보호 ▲미세먼지 실시간 정보제공 등 3대 부문 14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감축·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배출 사업장,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감시체계를 가동해 불법배출을 방지하고 도로 청소차 확충으로 자치구별 도로 청소를 강화하며 미세먼지 안심구역에 추가를 지정한다. /김용현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달 30일 무안군 남악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 '2022년 전남 농축협조합장 포럼' 행사에서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 및 장승영 이사로부터 인재육성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남 농축협조합장 포럼

도정 비전·농정 방향 소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남악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전남 농축협조합장 포럼에서 2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세계로 뽐비하는 행복전남 정책·농정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5개월간의 성과를 설명하며 "더 큰 미래, 위대한 전남의 힘찬 발걸음을 지지해준

조합장과 도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전남도의 비전인 '세계로 뽐비하는 대도약, 행복전남시대'를 실현해 전남이 역사적 대전환시대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정 핵심 키워드인 고품질·스마트·수출농업을 통해 전남 농업이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농가소득, 미래농업, 고부가가치 등 2023년 농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건설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

로 성장하도록 세계일류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지사는 "올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와 수확기 쌀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순간마다 전남 농축협이 농업인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왔다"며 "앞으로도 농민 삶의 현장에서 농업·농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포럼에서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시군 농축협조합에서는 도내 청소년이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마음을 담아 전남도에 인재육성장학금을 전달했다.

/임채민 기자

전남자치경찰위, 지역대학 학술교류 확대

동신대·목포대와 업무협약

과학치안 정책 등 공동 연구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을 위해 지역 대학과 학술교류를 확대한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는 지난달 30일 "동신대학교에 이어 목포대학교와 자치경찰 분야 연구와 학술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위원회와 양 대학은 '범

죄 예방·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치안서비스 협업', '산학협력단 등과 학술교류·공동연구', '경찰행정학과 등과 연계한 도민 맞춤형 자치경찰 정책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한다.

위원회는 특히 양 대학과 현재 중점 추진 중인 과학치안 분야 정책 개발과 연구에 힘쓰기로 했다.

위원회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산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효과적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정책 등이 연구·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양 대학이 자치경찰의 동반자가 돼 기쁘다"며 "대학과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고 교류의 폭을 확대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출범 이후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내 대학, 공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치경찰제 발전 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근산 기자

이형석, 아동·청소년 성보호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사진)의원은 갈수록 약화해가는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경찰관의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올해 7월까지 총 사건 172건, 199명을 검거했다. 그중 신분비공개수사로 147건, 94명을 검거했고 신분위장수사로 23건, 105명을 검거해 신분위장수사를

통한 검거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한 반면, 신분위장수사는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한 승인절차 문제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검거율이 높은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함께 육아' 캠페인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 육아

본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JeollaNamdo,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가 함께합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